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로서 앞장섬

(금요일—저녁 집회)

메시지 3

앞장서서 생명을 공급함

성경: 요일 5:14-17, 고후 1:9, 4:10-12, 수 3:17, 4:10, 17

I.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뿐 아니라, 이 생명을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요일 5:14-17.

A.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하신다—요일 5:11-13, 요 3:15, 7:37-39.

1.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생명의 원천에 연결되었다—시 36:8-9, 요 3:15, 4:14.

2. 생수는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되어 우리로부터 다른 이들로 흘러들어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요 7:37-39.

a.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으로 더욱더 많이 분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롬 8:2, 6, 10-11.

b. 생명은 통로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이 되기를 원하신다—요일 1:1-2.

3.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죽음과 교회의 다른 지체들 안에 있는 죽음 모두를 이길 수 있다—요일 3:14, 마 16:18.

B. 요한일서 5장 16절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 곧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을 언급한다. 우리에게 생명의 넘치는 여분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누구든지 ...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 생명을 줄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하나인 믿는 이(고전 6:17)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믿는 이가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수단, 곧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문제이다.

2.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분배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성한 생명 안에 거하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존재해야 한다—요일 1:1-7.

a.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누려야 하며, 신성한 생명이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됨으로써 이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요일 5:11-13, 16.

b.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나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깊이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주님의 마음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시 25:14, 창 18:17, 22-33, 암 3:7.

II.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생명의 사역이 요구된다—고후 4:12.

A. 교회 역사 전체에 걸쳐서 교회는 은사들에 의해 분열되었지만, 생명의 사역에 의해서 분열될 수 없다. 우리가 생명의 사역에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면, 항상 하나 안에 지켜질 것이다—고전 12:4-11, 고후 3:6, 4:1.

- B. 생명의 사역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서 공급하는 것이다—고후 1:3-4.
1. 사역은 십자가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십자가의 길에 의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얻는다—고후 4:12.
 2.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풍성의 실재를 공급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에 달려 있다—엡 3:8.

III.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한다—롬 4:17, 고후 1:9, 요 11:25.

- A.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종결하고 끝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후 1:9.
- B.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으로 넣어진다—고후 4:16.
- C. 십자가의 죽임은 결과적으로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한다—고후 4:10-12.
1.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타고난 사람과 걸사람과 육체를 멸하여, 속사람이 발전하고 새롭게 되어 부활 생명을 살아 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결과를 가져온다—고후 4:16.
 2.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타고난 걸사람을 멸하여, 우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낼 수 있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해 신약에 있는 가장 깊은 사상이다—요 12:24-26, 빌 1:21상.
 3.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심오한 원칙이다—롬 6:4-5, 빌 3:10.
 - a.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빌 3:10-11, 롬 8:11, 고후 1:8-10, 4:14.
 - b.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수록, 그분의 부활 능력은 우리 안에서 더욱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을 더욱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요 11:25.
 4.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은 생명의 사역을 위해 부활 안에서 유용해지기 위해서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한다—빌 3:3.
- D. 움이 돋고 꽃피고 열매 맺는 지팡이는 우리가 생명을 몸에 공급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민 17:8.

IV. 사도들과 같이 우리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공급한다—고후 4:10-12, 수 3:17, 4:10, 17.

- A.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고후 4:12.
1. 사도들의 일은 생명이 믿는 이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죽음이 그들 안에서 활동하는 일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의 참된 일이다—고후 3:6, 4:10-12.
 2.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죽어야 한다.
 - a. 우리가 주님의 죽음의 죽임 아래 있을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된다—고후 4:10-12, 빌 3:10.
 - b.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의 죽임을 겪은 결과이다—요일 5:16, 요 12:24-26.
 - c.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다—고전 15:31, 고후 1:9.
 - d. 우리가 죽는다면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일할 것이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한다—고후 4:12.

- B.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댈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수 3:17.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언도록 제사장들을 죽음의 장소에 두셨다. 제사장들은 물로 들어간 첫 번째 사람들이고 물 밖으로 나온 마지막 사람들이었다—수 3:11-17, 4:10, 17.
 2.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죽음의 장소에 두셔야만 한다. 이럴 때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다른 사람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것이 죽음으로써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고후 4:12.
 3.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가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꺼이 죽음의 장소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췌

교회 건축을 위한 생명의 사역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는 항상 은사들로 말미암아 분열되었다. 그러나 생명의 사역은 결코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은사들에 있다면 우리는 분열될 것이다. 그러나 은사들에 관해서 잊어버리고 우리의 온 관심을 생명의 사역에 둔다면 항상 하나 안에 지켜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은사는 지방 교회를 건축할 수 없고 오직 사역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늘 사람들과 논쟁하려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다만 은사만 가진 사람임을 증명한다. 생명의 사역을 가진 사람은 결코 다투지 않을 것이다. 논쟁은 은사들과 교리적인 가르침들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은사들과 가르침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논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생명의 사역에 둔다면 우리는 논쟁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은사들과 가르침들은 교리적인 토론과 논쟁을 일으키며 지방 교회를 무너뜨린다. 지방 교회는 오직 생명의 사역에 의해서만 건축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시끄러운 집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집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생명의 사역은 교리적인 연구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고난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주님이 모든 종류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사역을 형성하실 것이다.

고린도후서에서 은사들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놀랍다. 오히려 1장, 4장, 6장, 11장에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이 있다. 그다음 1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주관적인 고통, 곧 육체 안의 가시에 대해 말했다. 그는 주님께 이것을 제해 주시기를 특별하게 간구했지만 주님은 거절하셨다. 기적이거나 신성한 병 고침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고난이 있었다. 고난을 통해 바울은 주님을 충분한 은혜로 체험했다. 이 은혜는 그의 약함 가운데서의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었다. 결국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고후 12:9)라고 말하는 것을 배웠다. 또 그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고후 12:10)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사역을 산출하도록 생명의 성장을 갖는 길이다.

지방 교회의 건축에 필요한 것은 은사들이 아니라 생명의 사역이다. 이 점을 예

시로 들기 위해 나는 워치만 니 형제님과 그에게 큰 도움을 준 바버(M. E. Barber) 자매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니 형제님은 청년으로서 항상 훌륭한 연사들을 존경했다. 니 형제님과 바버 자매님이 몇몇 연사들의 말을 들으러 갔을 때, 니 형제님은 그들이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나 바버 자매님은 “그것은 다만 인간적인 유창함을 지닌 교리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달리 말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사역이 없었다.

니 형제님은 내가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나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내가 사역과 은사의 차이, 즉 생명에 속한 말과 사람의 능변(能辯)의 차이를 알도록 도와주었다. 구변에 있어서 은사를 타고난 사람이 있겠지만 그의 말은 다만 울리는 구리일지 모른다. 그것은 듣기에 훌륭하지만 그 내용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다. 또 다른 사람은 언변은 어눌하나 그가 말하는 것에 무게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의 사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교회의 건축은 이러한 생명의 사역을 필요로 한다. 우리 모두는 교회 건축을 위해 우리 가운데서 더 많은 사역이 산출되도록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야 한다.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함*, 158-159쪽)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

요한복음은 특별히 생명을 말하는 책이다. 3장은 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이 물은 옛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4장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마치 하나의 원천이 우리 안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곧 생명의 원천에 연결되는 것과 같다. 7장에서는 이 생수가 단지 들어올 뿐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흐르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그들의 목마름을 적셔 준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 나가기를 원하신다.

바버 자매님은 바로 이런 분이였다. 사람들이 그녀를 만날 때마다 생명을 만난다. 여러분이 그 자매님과 앉아서 교통할 때, 일이 분도 못 되어 그녀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을 때 즉시 이 자매님의 공급을 느낄 수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녀 안에 많이 넣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게 하셨다. 생명은 통로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로써 생명을 다른 사람 안에 전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을 갖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워치만 니 전집*, 2집, 44권, 179-180쪽)

구함과 생명을 주심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요한은 이 단락의 요점에 이른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에 관하여 그분께 청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에 이르는’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을 향하는’을 뜻한다. 여기에서 요한은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신과 가까운 어떤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의 ‘구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거할 때 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의심할 바 없이 ‘구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형제를 본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가 ... 생명을 줄 것입니다.”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구절에 있는 두 번째 ‘그’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 어떤 번역자들은 두 번째 ‘그’가 주님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여 대문자를 사용한다. 사실 ‘그’는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즉, 죄 짓는 형제를 본 사람이며 그를 위해 구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술어 동사인 ‘구하십시오.’의 주어는 ‘그’이듯이 ‘생명을 줄 것입니다.’의 주어도 여전히 ‘그’이다. 이것은 구하는 사람이 죄 범한 형제에게 생명을 주리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구하는 사람 자신이 생명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이며 주님과 한 영 안에서(고전 6:17)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계서 죄를 범한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 거해야 하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행하고 살고 존재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기도는 치료를 위한 기도이며 여기의 기도는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의 요점은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려면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며 그분과 한 영 안에서 구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계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분배하실 수 있는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생명의 분배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이루어진다.

의심할 바 없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는 ‘생명’은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죄를 범한 형제에게 분배된 영적인 생명을 가리킨다. 그러나 문맥에 의하면 이 영적인 생명은 또한 범죄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위협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형제의 육신의 몸을 구출할 것이다(야고보서 5장 15절 참고).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257-259쪽)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생명 분배

생명을 주는 간구에 관해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깊은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다. 14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말한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깊이 그분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것이며 또한 죄를 지은 형제의 상황을 알 것이다. 그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의 참된 상황을 알 것이다. 이것은 깊은 일이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이고 죄를 범한 형제의 상태와 상황을 주님 앞에서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알 것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또한 이 형제가 죄로 인해 죽을 것인지 아닌지를 알 것이다.

이 구절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 이것을 말한다. 이 구절에서 간구하는 사람은 또한 죄를 범한 형제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것은 간구하는 사람이 그 간구의 대상에게 생명을 줄 것임을 나타낸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과 한 영 안에서 간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계서 우리가 위하여 간구하는 형제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생명 분배이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실질적이며 실지적인 것임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다른 면에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혹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체험은 깊은 것이다. 이것은 피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깊어야 하며 주님의 마음 안에 있음으로써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주님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형제의 상황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 실지적인 것이며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 준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주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정도까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아야 함을 본다. 그런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안에 기름 바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기름 바름이 있다면 우리는 기름 바름을 따라 계속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기름 바름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자신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실질적이고 실지적인 것임을 안다.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363-367쪽)